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15(2022.08)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CONTENTS

- I. 중앙아시아-중국 간 경제협력의 특징
- II.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현황
- III.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 현황
- IV.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투자 사례
- 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요약 >

I. 중앙아시아-중국 간 경제협력의 특징

- 중앙아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개발 및 교역,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인프라 구축, 제조업 투자 등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교역규모가 100배 증가하고, 투자, 에너지, 교통물류,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왔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투자·금융·에너지 개발·교통 인프라 구축 협력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등의 국제기구나 프로젝트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II.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현황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FDI 누계액은 2021년 말 기준 2,114억 달러를 기록함.
-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액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19%, 우즈베키스탄이 5%,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이 각각 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1992~2020년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에너지 개발 및 운송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2005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5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III.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 현황

-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누적액)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59.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국가별 투자액은 카자흐스탄이 58억 7,00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이 32억 6,000만 달러, 키르기즈가 17억 7,000만 달러, 타지키스탄이 15억 7,000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이 34억 4,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에서 카자흐스탄이 37.7%로 가장 비중이 크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함.
- 중앙아시아 국가별 중국의 FDI 추이(누계 기준, 2003~2020년)
-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가스전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2000년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201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일정한 규모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IV.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투자 사례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부문별로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운송,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등에 투자액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광물 및 에너지 개발에 41%, 에너지 운송에 27%, 철도 및 도로 건설에 17% 등의 비중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음.
- (에너지 개발) 중국의 CNPC는 중앙아시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 8.3%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바그티야릭, 갈키니쉬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가스전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투자를 통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국영전력공사는 2018년 카자흐스탄 잠빌 주에 1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임.
- (광물) 중국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의 광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중국 광산기업'은 타지키스탄 전체 광업 생산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철도 및 도로) 중국-키르기즈-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중국의 호르고스에서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항만인 악타우 간의 철도 건설 등이 계획됨.
- 또한 중국-키르기즈-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키르기즈 최대 관광지역인 이식쿨 호수의 원형도로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특구 및 제조업)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호르고스,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지대, 키르기즈 농업지대 등에서 다양한 부문의 제조업과 농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및 협회, 기업 간의 협력 추진을 통해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티타늄, 텅스텐, 아연, 구리, 리튬, 망간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광물들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우리 기업들은 이 지역과 광물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외교적 협의체인 'C5+C'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참고하여, 우리 기업들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I. 중앙아시아-중국 간 경제협력의 특징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상호 협력 분야와 필요성

- (에너지 개발 및 수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통해 에너지 및 광물 생산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확보에 큰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도 에너지 및 광물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과 금, 보크사이트, 크롬, 티타늄, 카드뮴, 구리, 아연 등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각국 국영기업들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 에너지 및 광물 생산에서 카자흐스탄은 1.44%, 투르크메니스탄은 0.37%, 우즈베키스탄은 0.27%의 비중을 각각 점유하고 있음. 또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귀금속 생산량의 3.86% 및 광물 연료 생산량의 1.53%를 점유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전 세계 광물 연료 생산량의 0.43%를 점유하고 있음.¹⁾
-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송유관 및 가스관이 연결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2020년 기준 중앙아시아 전체 수출량의 74%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교통 인프라) 유라시아 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물류환경이 열악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 해체 이후 투자 부진으로 노후화된 인프라 개발을 통해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중임.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망을 연결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운송망을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망 구축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국제운송 및 물류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제조업)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취약한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조업 생산이 발전한 중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함.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 협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함.
- 그동안 교역규모가 1992년의 4.6억 달러에서 2019년 463.4억 달러로 100배 증가하였으며, 투자, 에너지, 교통물류,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왔음.²⁾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은 C5(중앙아시아 5개국)+C(중국) 외교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8월 제1차 회의, 2021년 5월 제2차 회의, 2022년 6월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들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음. 특히 2022년의 3차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지속 추진이 논의된 바 있음.

1) World Mining Data 2022.

2) <https://www.globaltimes.cn>



- 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결성된 중국 주도의 다자 협력기구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이 가입하고 있음.³⁾
 - SCO는 당초 정치·군사·안보 부문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협력 범위를 경제 부문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운송 인프라, 교역, 금융, 문화 등 부문의 협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제안하였음.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제안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기업의 에너지, 운송물류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
- 2016년 중국이 주도하여 출범한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AIIB 회원국 수는 설립 당시의 57개국에서 2020년 말에는 103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AIIB에 가입해 있음.
-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도로 2001년 출범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에너지, 교역 협력 프로젝트로, 현재 다수의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CAREC 프로그램에는 중국, 몽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참여하고 있음.⁴⁾

3) SCO의 정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8개국이며, 아프가니스탄,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과 함께 대화상대국의 지위를 부여받음. <http://rus.sectesco.org>

4) CAREC 프로그램 참여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몽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11개국임. <https://www.carecprogra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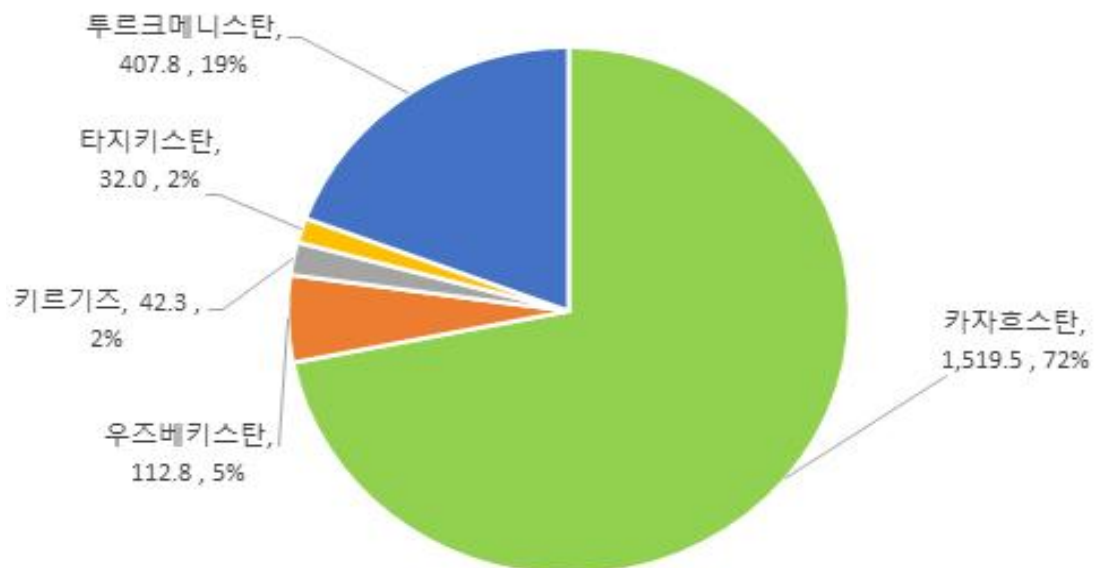
II.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현황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FDI 규모

- (누적투자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5개국의 FDI 누계액은 2021년 말 기준 2,114억 달러를 기록함.
- 카자흐스탄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19%, 우즈베키스탄이 5%,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이 각각 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2021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FDI 유입액(누적액 기준)은 2000년에 비해 17.6배 증가하였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43배 증가), 투자액이 가장 많은 카자흐스탄은 15.1배의 증가율을 기록함.

[그림 1]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가별 FDI 금액 및 비중(2021년 말 기준, 누적)

단위: 억 달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표 1]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 누계액(2000년, 2021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0년	2021년
카자흐스탄	10,078	151,953
우즈베키스탄	696	11,278
키르기즈	432	4,233
타지키스탄	136	3,198
투르크메니스탄	949	40,775
합계	12,293	211,438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추이와 국가별 현황

- (중앙아시아 FDI 추이) 세계은행의 1992~2020년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전반적으로 2005년 이후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⁵⁾
- 2005년 이후의 FDI 증가는 에너지 개발 및 운송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며, 2015년 이후의 FDI 감소는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중앙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중앙아시아 국가별 FDI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액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며,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감소한 데 기인함.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2012~14년, 2018년을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의 FDI 유입이 지속되어 왔음. 2018년 이후의 안정적인 FDI 유입 지속은 우즈베키스탄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의 결과로 분석됨.
-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DI 순유입액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감소하였음.

[그림 2]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연도별 FDI 유입액(2016~21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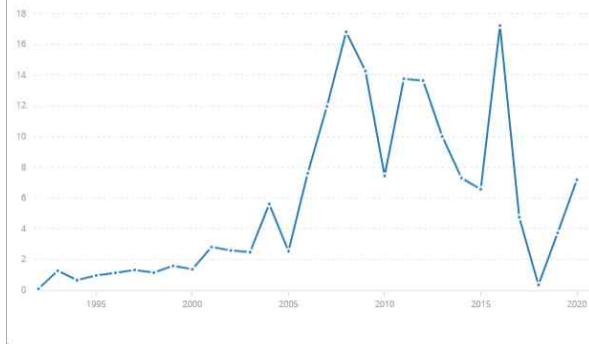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5)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그림 3] 카자흐스탄에 대한 FDI 순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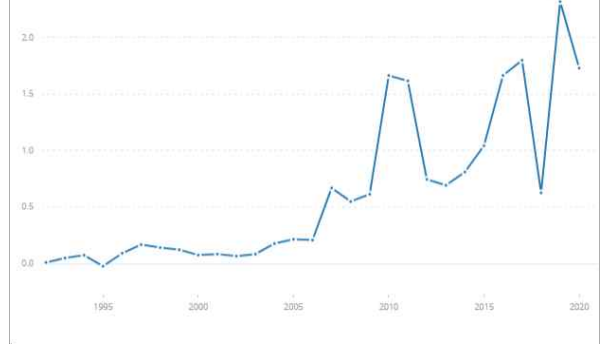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세계은행

[그림 4]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FDI 순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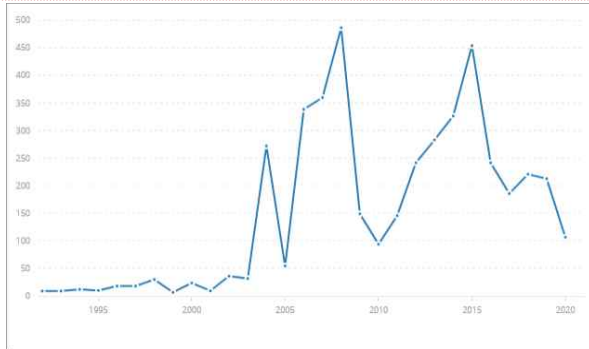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세계은행

[그림 5] 타지키스탄에 대한 FDI 순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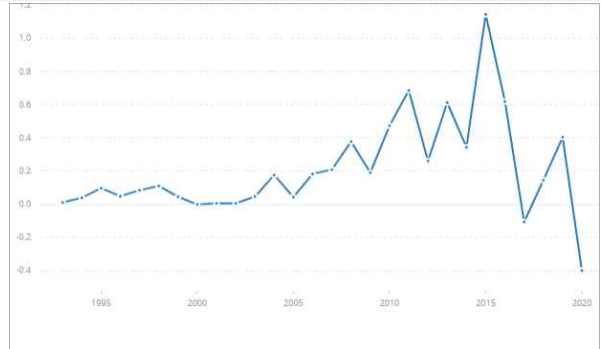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세계은행

[그림 6] 키르기즈에 대한 FDI 순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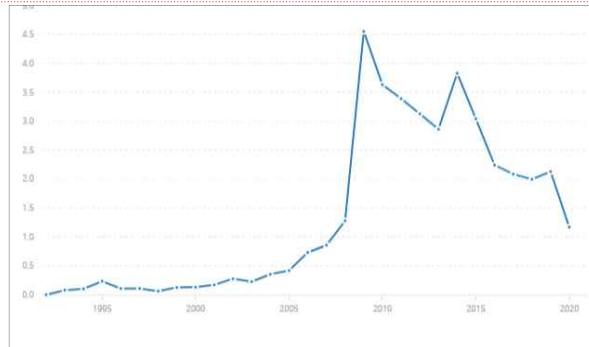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세계은행

[그림 7]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FDI 순유입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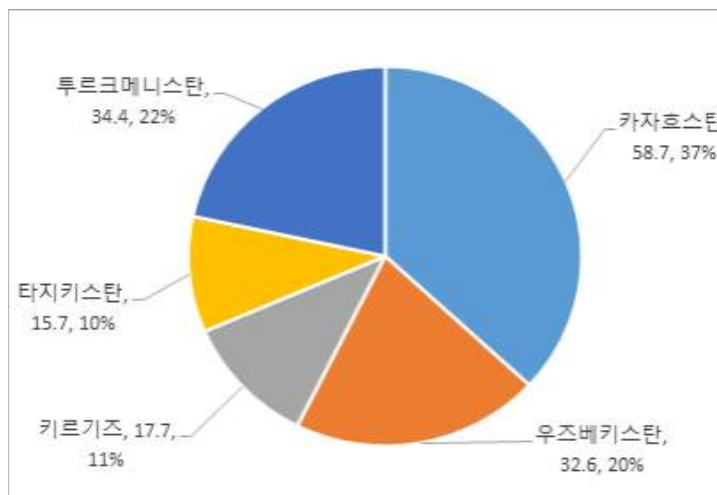
Ⅲ.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 현황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 (대 중앙아시아 투자액)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누적액)은 2020년 말 기준 159.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한편,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전 세계 FDI 규모(누적액)는 2조 5,806억 달러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은 0.6%를 기록하고 있음.⁶⁾
- 2020년 말 기준 국가별 투자액(누적액)은 카자흐스탄 58억 7,00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32억 6,000만 달러, 키르기즈 17억 7,000만 달러, 타지키스탄 15억 7,000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 34억 4,000만 달러 규모임.⁷⁾
- 이처럼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에서는 카자흐스탄이 37.7%로 가장 비중이 크며, 이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비중이 높음. 전 세계의 대 중앙아시아 FDI 유입 비중(그림 1)과 비교하면 중국의 투자에서 카자흐스탄의 비중은 절반 수준이며(72% 대 37.7%), 반면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의 비중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에 대해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에너지 비생산국들인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8]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FDI 금액 및 비중(2020년 말 기준, 누적)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 『2020 해외직접투자 통계』

6) 중국 상무부 『2020 해외직접투자 통계』.

7) 중국 상무부 『2020 해외직접투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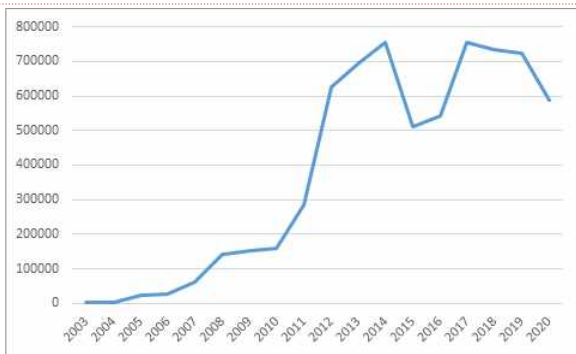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FDI 추이

- 중앙아시아 국가별 중국의 FDI 추이(누계 기준, 2003~2020년)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가스전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200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201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한편,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일정 규모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9]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국 FDI 누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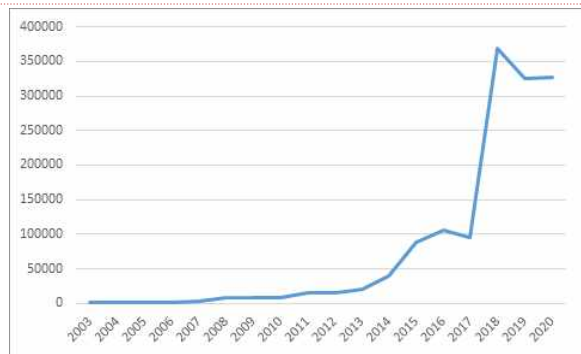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Bloomberg

[그림 10]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중국 FDI 누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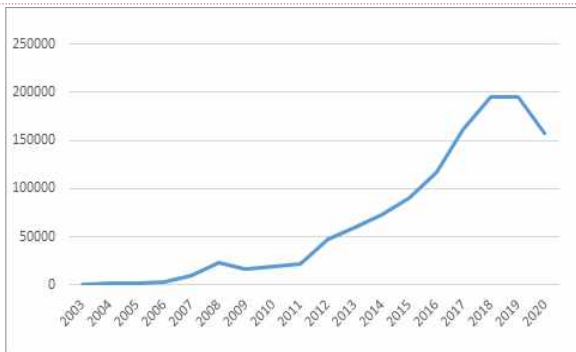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Bloomberg

[그림 11]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 FDI 누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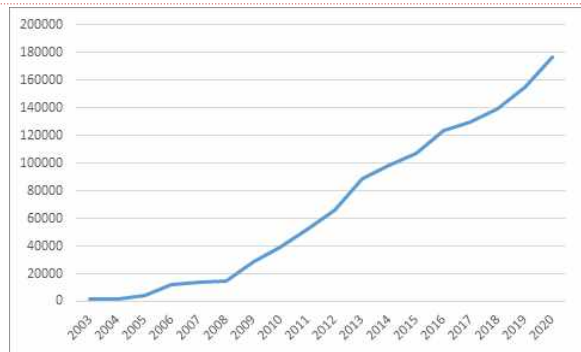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Bloomberg

[그림 12] 키르기즈에 대한 중국 FDI 누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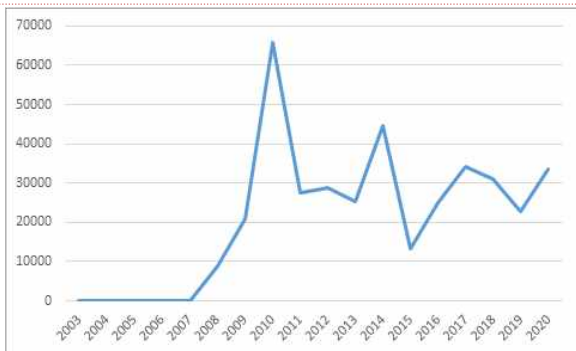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Bloomberg

[그림 13]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중국 FDI 누적액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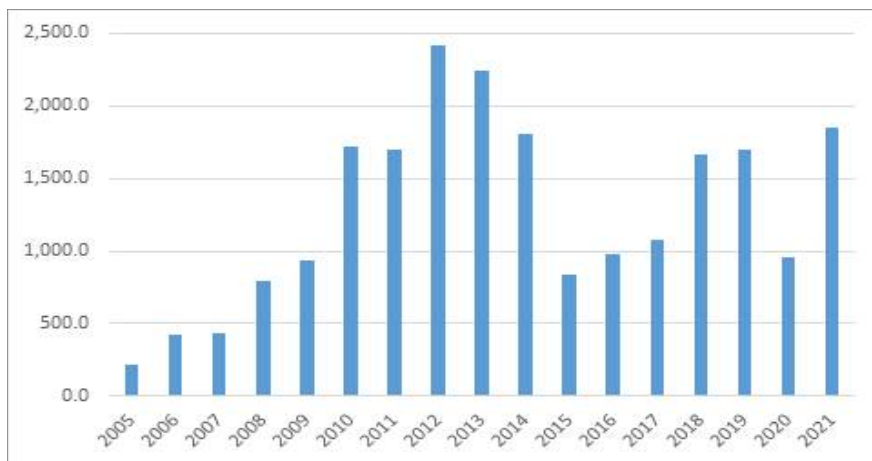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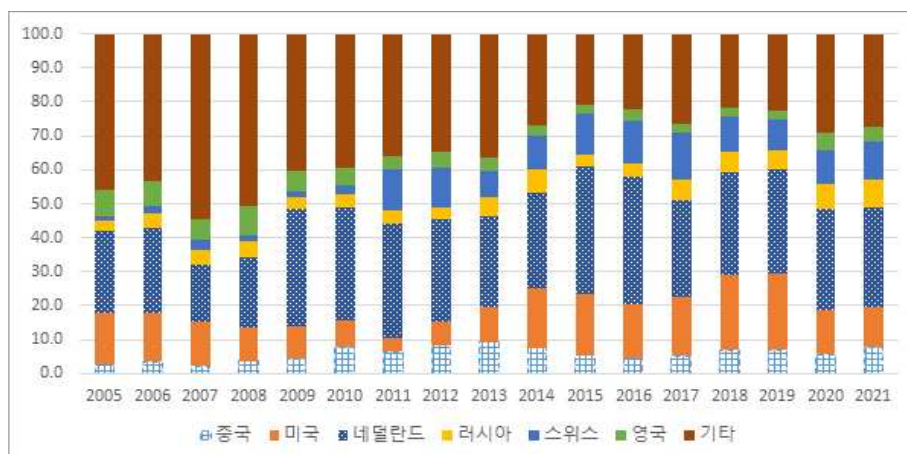
- (전반적 외국인투자) 카자흐스탄은 2021년 기준 일일 18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전 세계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생산국으로, FDI 유입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⁸⁾
- 주요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우라늄, 티타늄, 크롬, 구리 등의 광산 개발에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
- (중국 투자) 중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는 중국 에너지 기업이 카샤간 등 주요 유전에 투자를 실시한 2012~13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시기였던 2015~16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2.7%에서 2021년의 7.8%로 2.5배 상승하였음. 이 기간 러시아의 비중도 2.9%에서 8.0%로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비중은 14.9%에서 11.8%로 하락하였음. 한편, 카자흐스탄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광업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이며, 2005년 24.6%, 2021년 29.5%로 높은 투자 비중이 유지되고 있음.

[그림 14] 중국의 대 카자흐스탄 FDI 추이(2005~21년, 백만 달러)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ationalbank.kz)

[그림 15] 카자흐스탄에 대한 각국의 FDI 비중(%)



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국	2.7	3.5	2.3	3.7	4.4	7.7	6.4	8.4	9.3	7.6	5.4	4.6	5.2	6.9	6.9	5.6	7.8
미국	14.9	14.5	12.9	9.9	9.5	8.1	4.2	6.8	10.1	17.4	18.0	16.0	17.6	22.0	22.7	13.0	11.8
네덜란드	24.6	24.8	16.8	20.7	34.8	32.9	33.5	30.1	27.1	28.4	37.4	37.3	28.3	30.4	30.4	30.0	29.5
러시아	2.9	4.5	4.3	4.5	3.1	4.3	3.8	3.7	5.4	6.7	3.5	4.1	5.9	6.2	5.7	7.0	8.0
스위스	1.4	2.0	3.3	1.7	2.1	2.5	12.1	11.5	7.8	9.9	12.4	12.6	14.1	10.5	9.2	10.3	11.2
영국	7.6	7.4	5.9	9.0	5.9	4.9	4.1	4.8	3.9	3.3	2.6	3.3	2.5	2.6	2.5	5.0	4.3
기타	45.9	43.3	54.5	50.5	40.2	39.6	35.8	34.7	36.4	26.7	20.7	22.1	26.4	21.6	22.6	29.0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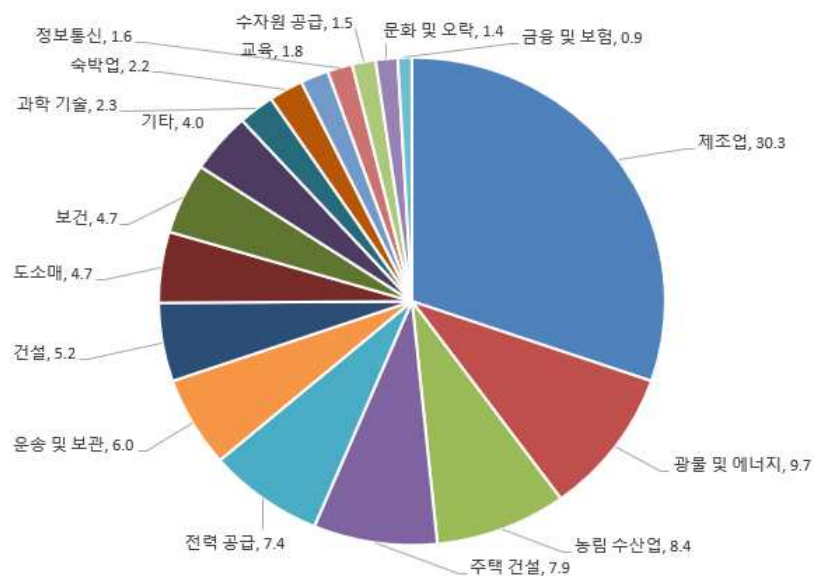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ationalbank.kz)

- (양국 간 다수의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에 55건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투자규모는 276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가운데 50.4%는 원유 및 가스,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며, 21.6%는 광물 및 금속 관련 부문, 4.2%는 기계 제작 부문에 대한 투자임.⁹⁾

(2)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부문별 비중은 제조업이 30.3%로 가장 높고, 이어 광물 및 에너지 9.7%, 농림·수산업 8.4%, 주택건설 7.9%의 순서임.
-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국으로, 중국의 투자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투자에서 2019년 26.2%, 2020년 31.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다음으로 러시아가 2019년 10.5%, 2020년 15.37%로 두 번째 비중을 기록함. 중국 기업들은 천연가스, 광물, 제조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 2021년에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FDI 유입액 86억 달러 중 중국이 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였으며, 이어 러시아(21억 달러), 튀르키예(11.8억 달러), 독일(8.07억 달러)의 순서임.¹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5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연 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16]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부문별 FDI 비중(2020년 말 누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 포털(data.egov.uz)

9) <https://www.eastasiaforum.org>

10) <https://www.spot.uz>



[그림 17] 2019년 및 2020년 대 우즈베키스탄 FDI의 투자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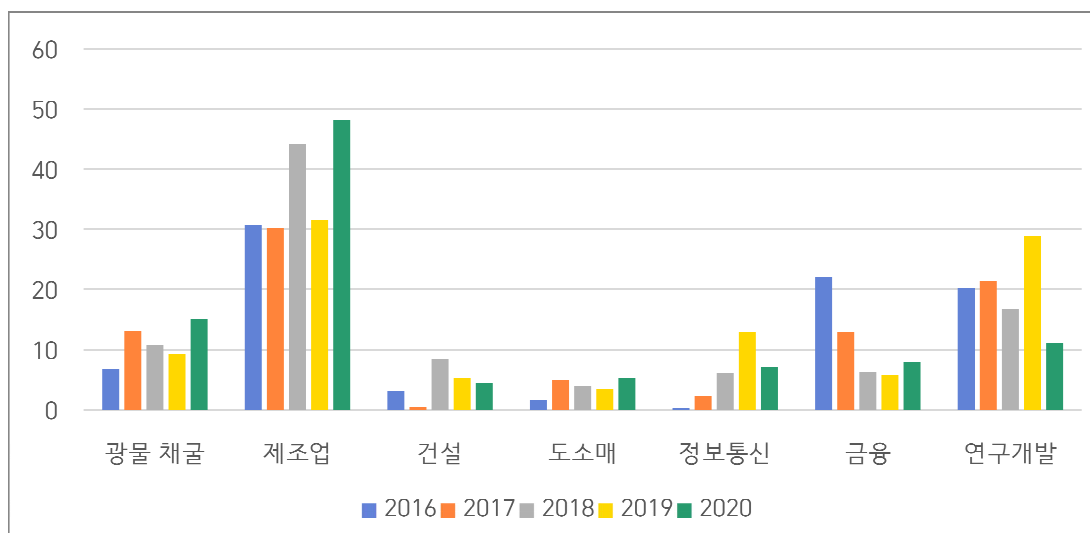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 포털(data.egov.uz)

- 우즈베키스탄 내 중국 투자기업의 수는 2020년 초 기준 러시아(1,8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52개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16%에 해당되며, 이 중 120개 기업은 지분 100% 투자기업임.¹¹⁾ 특히, 2019년에 531개 기업이 신규 설립되어 중국 기업의 진출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중국 기업들은 지작 자유경제지대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3) 키르기즈

- 키르기즈의 제조업, 광물 채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FDI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FDI의 부문별 비중은 제조업이 4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이어 광물 채굴 15.1%, 정보통신 7.2%로 집계됨.

[그림 18] 키르기즈에 대한 산업 부문별 FDI 비중(2016~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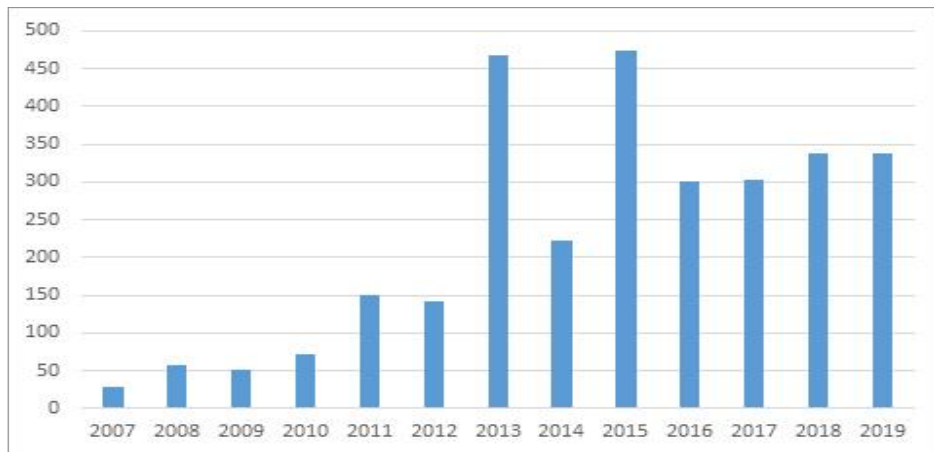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

11) <https://www.cer.uz>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2,814개이며, 중국 기업의 수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함. 국가별 투자 기업 수는 러시아(2,260개), 중국(1,906개), 튀르키예(1,768개), 카자흐(1,010개), 한국은 419개(2021년 3월 말 누계)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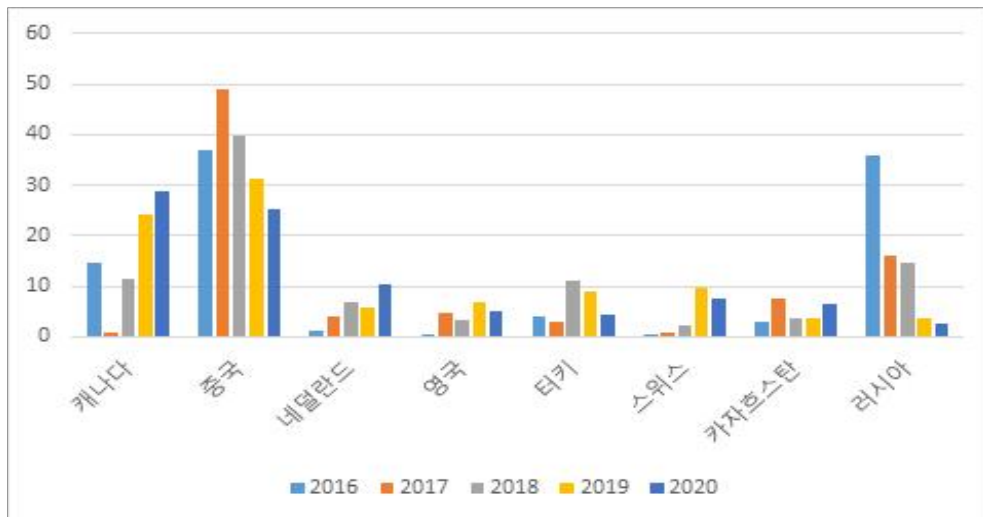
- 금을 비롯한 광물 부문에 FDI가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투자도 주로 광물 부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된 2013년 이후에 중국의 대 키르기즈 투자가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캐나다, 러시아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높은 투자비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그림 19] 중국의 대 키르기즈 FDI 추이(2007~19년, 백만 달러)



자료: eurasianet.org

[그림 20] 키르기즈에 대한 주요국들의 FDI 비중(2016~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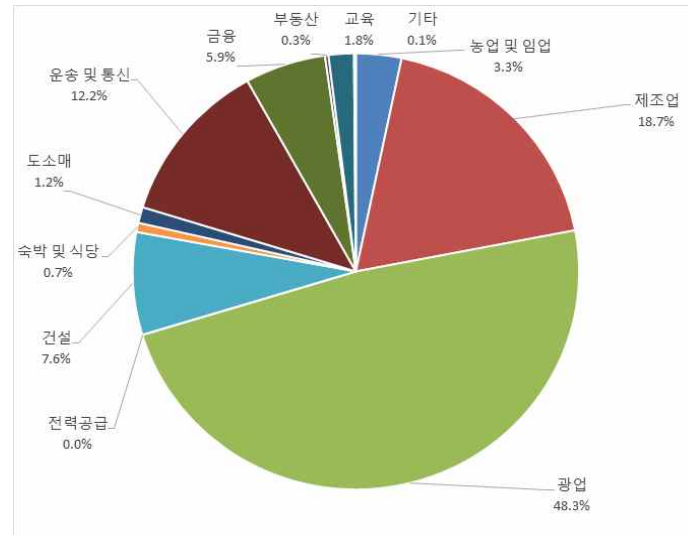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www.stat.kg)

(4)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에 대한 FDI 유입의 상당 부분은 광물 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투자 역시 광물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FDI의 48.3%(2010~20년 누계액 기준)가 광물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중국, 러시아, 영국의 광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음. 이어 제조업에 18.7%, 운송 및 통신업에 12.2%, 건설업에 7.0%의 FDI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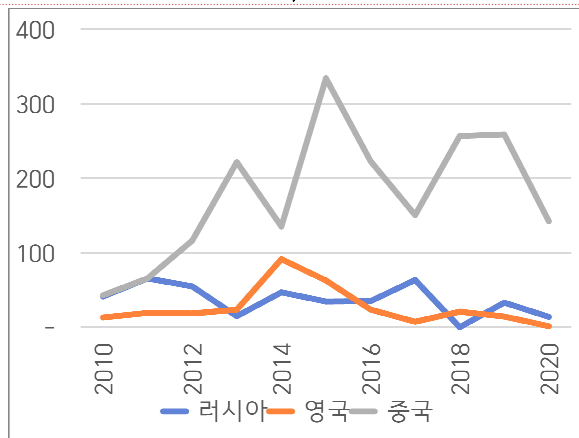
[그림 21] 타지키스탄에 대한 산업 부문별 FDI 유입(2010~20년 누계 기준, %)



자료: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https://nbt.tj/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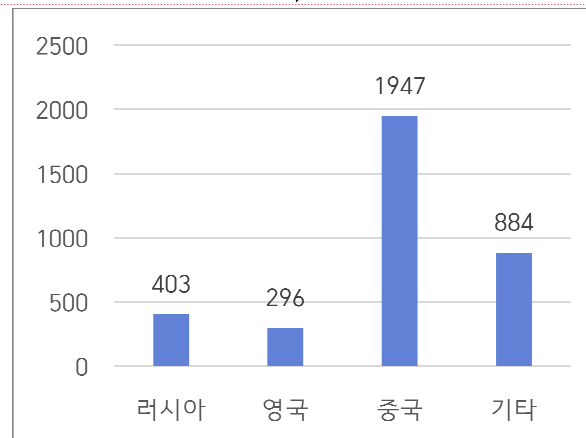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국의 FDI 투자 누적액에서 중국이 55.1%로 최대 비중을 기록했으며, 이어 러시아가 11.4%, 영국이 8.4%를 점유하였음.
- 2021년에도 전체 FDI 유입액 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2.1억 달러로 61.7%를 점유하였으며, 이어 튀르키예가 2,600만 달러, 스위스가 2,100만 달러, 프랑스가 1,900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일대일로 사업들이 추진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의 투자는 금, 은, 아연, 납, 구리 등의 광산에 집중되었으며, 농업, 섬유, 통신, 시멘트 등의 부문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광물업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타지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금 생산의 경우 중국과 타지키스탄 합작회사의 생산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D라인이 타지키스탄을 통과하고 있으며, 중국의 CNPC가 이 구간의 가스관 건설에 투자하고 있음.

[그림 22] 타지키스탄에 대한 주요국의 연도별 FDI (2010~10년, 백만 달러)



자료: 타지키스탄 중앙은행(nbt.tj/ru)

[그림 23] 타지키스탄에 대한 주요국의 FDI 누적액 (2010~20년, 백만 달러)



자료: 타지키스탄 중앙은행(nbt.tj/ru)



(5)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FDI는 에너지 부문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IT, 건설, 제약, 경공업, 농업 등의 부문에도 투자가 진행되었음.
- 2003~17년 FDI 누계액 120억 달러 중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7억 달러로 45.2%를 점유하였으며, 이어 교통 부문이 24.0%, 금속 부문이 10.0%의 투자액을 점유하였음.¹²⁾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중국, 말레이시아, UAE, 영국 등의 FDI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카스피해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 유전 개발에 UAE, 말레이시아, 영국 에너지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두바이에 본부를 둔 Dragon Oil사¹³⁾는 2000년에 국영 투르크멘 석유회사(Turkmen Oil)와 2025년까지 유지되는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했으며, 2022년에는 이 협정을 2035년까지 연장하였음. Dragon Oil사의 2022년까지의 투자액은 81억 달러이며, 향후에도 70~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Dragon Oil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4.37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는 3.5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¹⁴⁾
-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FDI 유입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천연가스 개발 및 가스관 건설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9년으로, 이 해에만 투르크메니스탄 GDP의 무려 22.5%에 달하는 45.5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¹⁵⁾ 이후에도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관 건설과 원유 및 가스 생산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의 투자가 활발하였던 2012년의 경우 전체 FDI 유입액에서 중국이 39%, 러시아가 16%, 튀르키예가 9%, 캐나다가 8%의 비중을 각각 점유하였음.¹⁶⁾

12) OECD.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2019.

13) UAE의 Emirates National Oil Company (Enoc)의 자회사

14) <https://business.com.tm>

15) <https://www.macrotrends.net>

16) OECD.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2019.



IV.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투자 사례

원유 및 가스, 신재생 에너지 부문 투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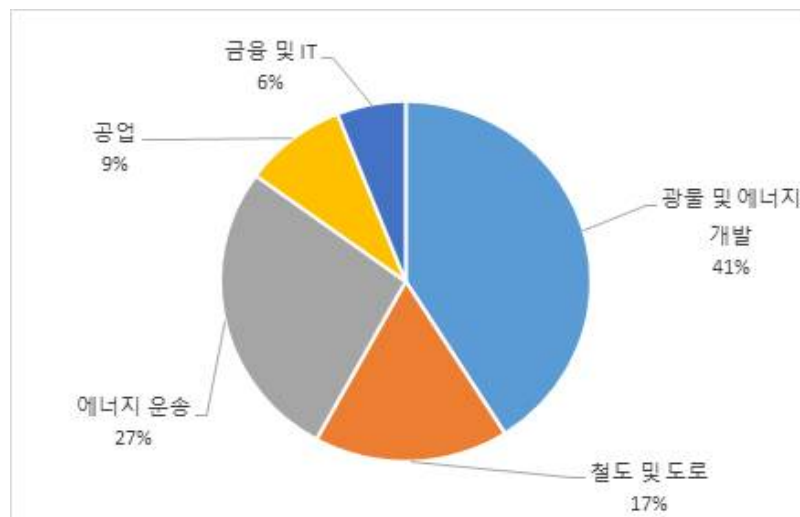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부문별로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운송,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등에 투자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됨.

[표 2]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부문별 투자 규모(2018년 말 누적 기준, 백만 달러)

국가	철도, 도로	에너지, 운송	공업	농업, 식품	광물/에너지 개발
카자흐스탄	14,539.3	18,849.5	10,545.5	1,049.6	37,778.0
우즈베키스탄	1,269.0	205.3	923.4	28.7	2,209.3
투르크메니스탄	1,402.5	9,410.0	-	-	1,403.0
키르기즈	1,773.0	2,713.0	150.8	31.5	676.8
타지키스탄	4,515.9	4,516.0	342.0	465.0	-
합계	23,499.7	35,693.8	11,961.7	1,109.8	42,067.1

자료: BRI in Central Asia: Overview of Chinese Projects June 2019.

[그림 25]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부문별 투자 비중(2018년 말 누적 기준)



자료: BRI in Central Asia: Overview of Chinese Projects June 2019.

- (유전) 카자흐스탄의 텡기즈, 카라차가낙, 카샤간 3대 유전에는 Chevron, Eni, Shell, Lukoil, Total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의 CNPC는 중앙아시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 8.3%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음.¹⁷⁾
- (가스전) 바그티야릭, 갈키니쉬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가스전에 대해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 수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중국 국영전력공사는 2018년 카자흐스탄 잠빌 주에 1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송유관, 가스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송유관과 가스관의 건

17) 카샤간 유전의 매장량은 세계 5위 규모로 점차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됨.



설이 진행되었으며, 가스관의 경우 총 67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의 송유관 건설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사업에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음. 중국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의 가스관 건설에서 각각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하였음.

[표 3]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국가	투자기업	중국 기업의 투자 내용
카자흐스탄	카사간 유전	CNPC 50억 달러 투자 8.33% 지분 인수(2013년) * 지분 구성: Eni(16.81%), Shell(16.81%), Total(16.81%), CNPC(8.3%), Inpex(7.56%)
	모이낙 수력발전소	중국수력발전건설 집단
	에키바스투스 화력발전소	2016년
	Zhanatas 풍력 발전소	잠빌 주 자나타스 지역에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100MW 전력생산 풍력발전소 건설(중국의 국영전력공사 수주, AIIB 자금 지원(4,67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악수(Aksu)강 소수력발전소	CNEEC(중국국영전력공사) 투자 추진
키르기즈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키르기즈 구간에 14억 달러 투자(2016년)
	비쉬켄 화력발전소	3.86억 달러 투자(2014년)
	Zhongda 정제 공장	4.3억 달러 투자(2013년)
타지키스탄	두산베 화력발전소	TBEA(Tebian Electric Apparatus) 3.5억 달러 투자(2014년)
투르크메니스탄	바그티야릭(Bagtyarlyk) 가스전	CNPC 40억 달러 투자(2008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	PetroChina, CNODC 공동으로 20억 달러 투자(가스관의 전체 투자액은 67억 달러 규모로 추산)
	갈키니쉬 가스전	CNPC
	카스피해 Block III	Buried Hill

광물 부문 투자 사례

- 중국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의 광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2009년 설립된 타지키스탄-중국 광산회사는 타지키스탄 전체 광업 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타지키스탄 국영 Talco사와 중국 티벳화옥금광(Tibet Huayu Mining)회사는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금 1.5톤과 안티몬 1만 6,0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아울러 길림금광그룹, Full Gold Mining 등의 중국 기업들이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서 금광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카자흐스탄이 수출하는 합금철의 36.1%, 구리의 47.8%를 수입하는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



[표 4] 중국의 중앙아시아 내 주요 광산 프로젝트(2018년 6월 말 기준)

국가	투자기업	중국 기업의 투자 내용
키르기즈	Taldybulak Levoberezhny 금광	길림금광그룹(60%), 2015년 7월 시험 생산
	Ishtamberdy	Full Gold Mining(중국), 2016년 생산 개시
	Kuru Tegerek	China national Gold Corp.
	Shambesai	Guizhou Geological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Co.
타지키스탄	Zeravshan 금광	길림금광그룹(75% 지분 투자)
	Pakrut 금광	중국비철금광(100% 지분 투자)
	타지키스탄-중국 광산기업 (Tajik-Chinese Mining Company)	2009년 설립: 아연, 납, 구리 등 다양한 광물 생산 * 2022년 기준 타지키스탄 전체 광산업 생산액의 50% 점유
	타지키스탄 Talco사와 중국 티벳 화옥광산회사 간 합자회사	2018년 2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 금, 안티몬 등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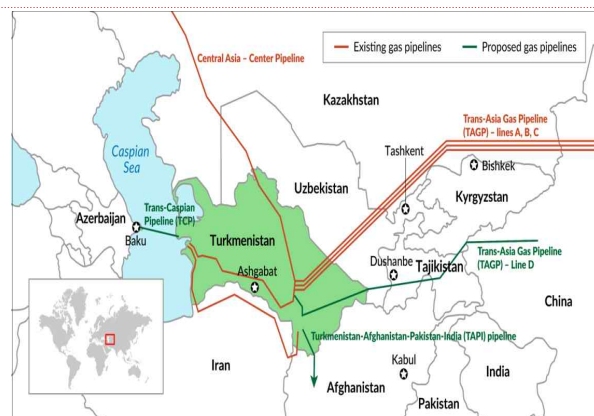
자료: The long road ahea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018. Fitch solution global mines database.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원유 및 가스 교역

-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이 200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유 및 가스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 (가스관) 2009년 12월 완공된 총연장 1,833km의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되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A-B-C라인),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중국(D라인)으로 연결되었음. 가스관의 수송용량은 A-B-C라인이 각각 연 150억 m³, D라인이 연 250억 m³ 규모이며, 최대 연 600억 m³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2020년에는 390억 m³의 가스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중국 소비량의 15% 비중임.
- (송유관) 2006년 5월 완공되어 아타슈와 알라산카우를 연결하는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카즈무나이가스(KMG)와 중국 CNPC의 합작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총연장 965.1km, 수송용량은 연 1,000만 톤에 달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연 2,000만 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또한 향후 카스피해 대형 해상유전인 카사간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임.
- (투르크메니스탄) 현재 천연가스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국 CNPC와 30년 동안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에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개시한 이후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여 2019년과 2020년에는 가스 수출량의 각각 100% 및 86%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음. 러시아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2016년 중단된 이후 2020년에 재개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출량의 12%를 점유함.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음.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총 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의 비중은 2014년 3.5%, 2017년 8.3%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06억 m³의 수출량 가운데 59억 m³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56%의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하였음.¹⁸⁾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까지는 천연가스 생산량의 대부분을 러시아로 수출하였으나, 2010년 중국과 연 100억 m³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그림 26]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자료: www.gisreportsonline.com

[그림 27]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자료: www.kcp.kz/company/map

18) 반면 카자흐스탄의 러시아로의 수출 비중은 2014년 97.4%, 2017년 91.7%에서 2021년에는 43.4%로 감소함.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년, 2018년, 2022년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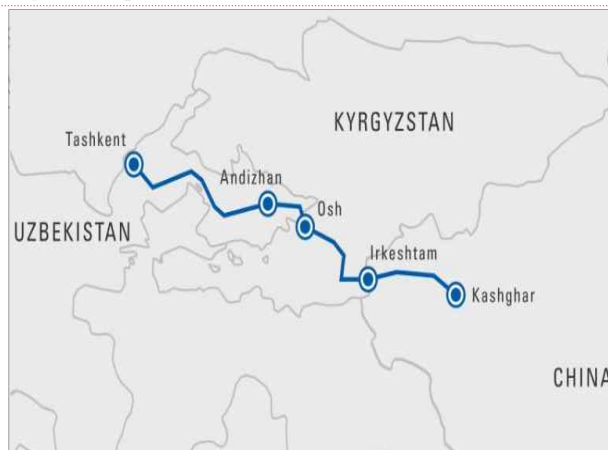
교통 인프라 부문 투자 사례

- (철도) 중국과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중국의 호르고스에서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항만인 악타우 간의 철도 건설 등이 계획됨.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북서부 지역과 중심부를 연결하는 19km에 이르는 캅치 터널이 완공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누르술탄 공항에서 수도 도심을 연결하는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도로) 중국과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키르기즈 최대 관광지역인 이식쿨 호수의 원형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표 5] 중국의 중앙아시아 내 주요 운송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호르고스-악타우 철도 (계획 중)	중국 국경지대의 호르고스로부터 카스피해 악타우 항만으로 철도 건설(전체 투자규모 27억 달러)
	누르술탄 도시 경전철 (진행 중)	공항과 누르술탄 도심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우즈베키스탄	캅치 터널(완료)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19km의 철도 터널 건설: 중국 철도터널그룹(China Railway Tunnel Group)이 건설하며, 전체 투자액 4억 5,5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은행이 3억 5,000만 달러 대출
키르기즈	이식쿨 호수 원형도로 (계획 중)	키르기즈 최대 관광지역인 이식쿨 호수 주변의 도로 건설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도로 (계획 중)	신장위구르 - 키르기즈 오쉬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950km) 간 도로 건설
	중국,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연결 철도 (계획 중)	신장위구르-오쉬(또는 아르푸)-안디잔 간 철도 건설

[그림 28]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중국 도로 계획



자료: www.iru.org

[그림 29]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중국 철도 계획



자료: www.thethirdpole.net



경제특구 및 제조업 부문 투자 사례

-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특구)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호르고스에 양측의 투자를 통해 생산 및 물류 특구가 설립되었음.
- 호르고스 특구는 4,591헥타르의 광활한 면적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내륙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특구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간의 물류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물류의 장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부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표 6] 중국의 중앙아시아 내 경제특구 및 제조업 투자

국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생산 및 물류특구(완료)	2015년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호르고스에 물류 단지, 산업단지, 내륙항 건설(비용: 2억 4,50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자유지대(진행 중)	30개 중국 기업들이 투자 진행
	인터넷망 현대화(우즈베크텔레콤)	Huawei 1.07억 달러 투자 계획
	무선통신 현대화(우즈모빌)	ZTE 5,000만 달러 투자 계획
키르기즈	농업지대	농산물 재배, 농기계 및 부품 생산

-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지역의 지작 경제자유지대 내에 위치한 팡성(Peng Sheng) 산업단지에는 세라믹, 신발, 휴대폰, 농가공 부문의 30개 중국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¹⁹⁾
- 이외에도 중국 섬유기업들이 카르쉬와 안디잔의 산업단지에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쉬켄트와 지작에서는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타쉬켄트에는 중국 기업이 타이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 (키르기즈) 키르기즈의 농업지대(Asia star agricultural cooperation zone)에 Henan Guiyou Industrial Group이 투자하여 농작물 재배, 농기계 및 부품 생산 등을 진행하고 있음.²⁰⁾

19) pengsheng.uz/ru/

20) beltandroad.hktcdc.com



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도적 협력 활성화

- 2020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외교적 협의체인 'C5+C' 활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협의체를 투자 확대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 정부도 기존의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내에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별 분과를 설립하고 투자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은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현대화 등 6개 유망 협력분야를 위주로 협력 사업을 발굴·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중앙아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음.²¹⁾

중앙아시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확대

-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확대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기업들도 우즈베키스탄 특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 정부 관련 기관과 국내 중앙아시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특구 투자 시 현지 정부로부터 혜택이 제공되거나 현지 시장 진출에 강점이 있는 산업 부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에 특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현지 진출 희망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에너지 및 광물 공급망 확대

-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원유, 가스, 석탄,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관련협회,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원유 및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가스전의 개발에 따라 생산이 확대되고 있음. 이미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향후 에너지 교역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티타늄, 텅스텐, 아연, 구리, 리튬, 망간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광물 생산이 활발하므로 관련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광물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21) <https://www.kf.or.kr>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



지 및 광물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부와 에너지·광물 관련 연구소, 민간협회 간의 협력으로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광물 부문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진출 방안 모색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IT 부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IT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에서 활동하던 IT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는 한류가 확산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 분야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현지에서 관심이 많은 이 부문들에서의 기업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류의 영향에 따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경 및 보건·위생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음.



< 참 고 문 헌 >

BRI in Central Asia: Overview of Chinese Projects. June 2019.

OECD.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2019.

World Mining Data 2022.

<https://www.globaltimes.cn>

<https://www.carecprogram.org>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중국 상무부 『2020 해외직접투자 통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nationalbank.kz)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우즈베키스탄 통계 포털 (data.egov.uz)

<https://www.eastasiaforum.org>

<https://www.spot.uz>

<https://www.cer.uz>

eurasianet.org

키르기즈 통계청 (www.stat.kg)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https://nbt.tj/ru>)

<https://business.com.tm>

<https://www.macrotrends.net>

www.gisreportsonline.com

www.kcp.kz/company/map

www.iru.org

www.thethirdpole.net

pengsheng.uz/ru

beltandroad.hktdc.com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Bloomberg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 <https://www.kf.or.kr>